

勞使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포천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노·사 양측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수 차례의 노사 실무회의와 16차례의 단체협상을 진행해온 끝에 이날 협약을 타결했다.

7월25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홍희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과 진순영 포천지부장 등 노조측 교섭위원과 사용자측 교섭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대표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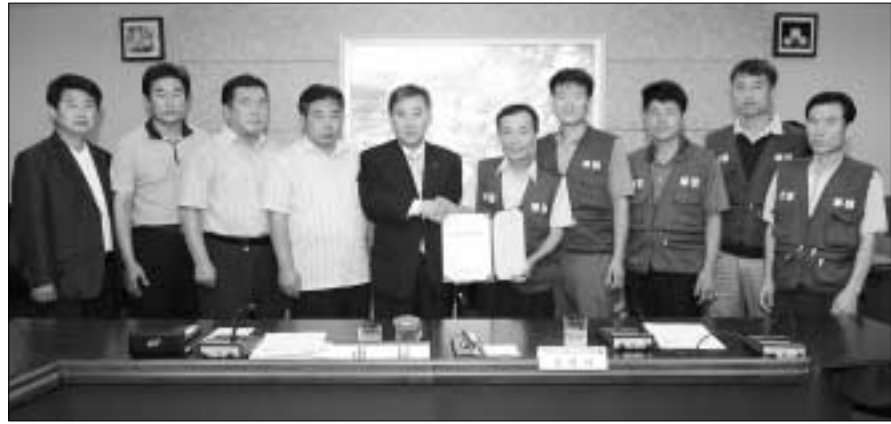
협약체결 후 박운국 포천시장은 상호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관계 교섭을 이루어낸 노조교섭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에 합의된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부문으로 ▶월 기본급 120만원 미만인 직종은 2%인상 ▶기본급 1백만원 이하 직종 정액급상비 매월 80,000원 지급▶재활용센터 조합원 명절휴가비 50%인상, 근로

조건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일 특별휴가 부여 ▶산전산후휴가 90일 보장 등 총16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 타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등 극단적인 행동 없이 타결됨으로 노사 상생의 문화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수 차례의 노사 실무회의와 16차례의 단체협상을 진행해온 끝에 7월 25일 협약을 타결하고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포천시 영북면 운천시장 상인회(회장 상낙원)는 7월25일 영북농협 3층에서 운천시장 상인회장 취임식 및 상인회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다짐 운천시장 상인회 사무실 개소식

포천시 영북면 운천시장 상인회(회장 상낙원)는 7월25일 영북농협 3층에서 관내기관장 및 단체장, 상인회원, 지역주민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시장 상인회장 취임식 및 상인회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상낙원 회장은 취임사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민간군의 유대를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반목을 최소화하며, 시장 상가 활성화계획을 충실히 수행해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천시장 및 상점가는 그동안 인구감소, 시설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최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영북면에서 지난 3월부터 운천상가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비를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등 운천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들어 그 결실을 보고 있다.

또한 영북면은 지난 5월 운천상가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천상가 상인들에게 서비스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였으며 6월에는 운천상가 활성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운천시장 상인회 임원진을 선출하는 등 운천시장 상인회 구성을 통한 운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운천시장 상인회는 운천지역 14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며 7월 25일에 포천시청에 상인회로 정식 등록되었다. 아울러 지난 7월 5일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운천시장 활성화 용역사업비가 확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4천만원의 예산으로 8월부터 4개월 동안 운천시장 문제점 파악 및 시설 현대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350여개 업소중 1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운천시장 상인회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상낙원(영심마트) ▶부회장 안광수(삼성모텔), 최은임(삼품라이프) ▶사무장 이기용(단전PC방) ▶총무 김경지(핸드폰 대리점) ▶감사 김수철, 황치성 ▶고문 박상기, 박경희, 양범석, 이봉식 ▶자문위원 김훈수, 박태호, 심재근, 안천중, 유홍섭, 이상우, 이성일, 정해균, 채동기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재)포천시인재장학재단에 360만원 장학기금 포천로타리클럽 · 포천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뜻모아



포천로타리클럽과 포천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장학기금 360만원을 재단법인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에 전달했다.

포천의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하여 포천로타리클럽(회장 황광익)과 포천라이온스클럽(회

장 지원춘)회원들이 틈틈이 모은 장학기금 360만원을 7월 23일 포천시청 시청실에서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이사장 박운국)에 전달했다. 이날 박운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함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장학재단이 포천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에서 대통령기 태권도대회 개최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2천여명 참가 열띤 경쟁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7월18일부터 6일간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국내 태권도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남·여 고등부, 대학부, 남·여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국에서 선수 및 임원 2000여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7월18일 열린 개회식에는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이천수 대진대학교 총장, 이강립 포천시의회장, 이종승 대한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조복현 포천시태권도협회회장, 태권도협회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포천에서 이런 큰 대회를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기 바라며 승패를 떠나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이번 대회가 태권도인들이 모두 함께 하는 대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에서 제42회 대통령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해 2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목회단상

오해의 은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인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그것이 오해(誤解)다. 전혀 본말(本末)이 전도(顛倒)되어 거짓이 사실처럼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을 참아낸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아프다.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오해할 권리는 있지만 해명할 의무는 없다"

독일의 신비주의자이며 성자의 이름을 들던 수우소는 어느 날 문을 두들기며 우는 여자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나갔더니 어느 여인이 "이 아기가 당신의 아들이요. 이 만큼 키웠으니 이제 당신이 키우셔요"하며 갓난아기를 수우소의 가슴에 안겨주고 여자는 도망쳤다. 이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었으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키웠다. 이 소문은 곧 퍼지기 시작하여 위선자나 사기꾼이니 하며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수우소는 일체의 변명을 안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아기를 키웠다. 수우소는 이 아기를 '시련의 은혜'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시련으

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아기의 엄마는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 하기 위하여 수우소를 찾아왔는데 그 장남에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진실은 밝혀졌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섞여 들어와 분노와 안타까움을 가져온다. 오늘날 정지관에서는 네가티브니 모함이니 하고 있다.

루터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열 가지 시련을 받는 때보다 더 두려워하라"는 명언도 남겼다. 더 불어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신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試鍊)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김형성
내촌교회 목사

문의) 031-532-2489

포천그린농업대학 서울대학원생과 토론회

농업의 이론과 실제 차이 극복 미래농업 발전 기초

21세기 글로벌 지식·기술·정보시대에 포천농업을 선도할 포천그린농업대학(학장 박운국) 제3기생 50여명과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대학원생 20여명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업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미래농업 발전에 기초



포천그린농업대학 제3기생 50여명과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대학원생 20여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를 다지기 위해 7월19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만남을 가졌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포천그린농업대학은 나이가 30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에 이론을 정립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과의 토론은 실제와 이론의 충돌이 있었지만 농업의 국제적 변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발표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학생들의 미래농업발전에 대한 발표 그리고 포천그린농업대학의 한우, 포도, 사과, 시설채소, 벼농사등 농업인의 현실적 사례와 애로사항을 발표, 분야별 궁금한 사

항을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양측의 사회로는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한호)와 포천그린농업대학(지도기회담당 이경훈)에서 각각 맡았다.

토론회 끝나고 학생들이 안내하는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포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어색하고 서투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미래농업의 발전방향을 토의하는 자리가 계속적인 연결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⑫

남북 분단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서익석

다성지역 66기독교인대표이사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적 정치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베트남(1975년), 독일(1990년), 예멘(1991년)이 정치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한반도와 중국만이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다른 분단국가들의 경우와는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독일은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 이후 통족상진이라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동족 간의 불신, 적대감이 없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어느 정도 유지한 반

면, 남북한은 6·25 전쟁을 치른 결과 동족 간의 상호 불신과 적대감으로 민족이 이질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한반도와 중국은 이념을 달리하는 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전을 거쳐 극단적인 민족 분단을 체험하였고, 따라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하였으며, 통일 문제를 둘러싼 선전과 역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국내의 정치 세력들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국도가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경우와는 다르다.

셋째, 국토의 남북 분단,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베트남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베트남

의 경우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 월맹 쪽의 민족사적 정통성 주장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가졌으나, 한반도의 경우는 처음부터 민족사적 정통성이 남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다르다.

위와 같이 한반도 분단은 다른 국가들의 분단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통일은, 단순히 분단된 국토의 통합이라는 일방적인 통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사회 단위가 하나의 국가 사회 단위로 통합되는 일반적 의미의 국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민족적 정치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綠夜와 어우러지는 여름 밤 콘서트

평강식물원 개원기념 8월19일까지 야간개장



포천시 영북면 신정호수에 위치한 평강식물원은 7월28일부터 8월19일까지 녹음이 어우러지는 밤 콘서트를 진행한다. (사진은 습지원)

포천시 영북면 신정호수에 위치한 평강식물원은 7월28일부터 8월 19일까지 녹음이 어우러지는 밤 콘서트를 진행한다.

한 쪽의 수채화 같은 풍경 때문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 있는 연꽃정원에는 50여 종의 연꽃이 수려이 지금 절정기를 맞고 있다.

연꽃정원이 원예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습지원은 천연의 모습이다. 300여 평의 넓은 습지원 가운데로 난 '나무데크'를 따라가면 보물 창고,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옛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온갖 곤충이 수 초 틈을 뛰어다니기도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습니다 정신했다.

꽃창포의 마지막 전령 질주가 끝난면 분홍빛 털부처꽃이 곳곳에서 피어난다. 물 안쪽으로는 노랑이리 연꽃이 그 이름만큼이나 눈에 어둑어둑하게 보이고, 물 밖으로는 연분홍빛 노루오줌의 무리가 넓게 펼쳐진다. 화려하진 않지만 한국적 정서가 살아 있어 더욱 싱그러운 습지원은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자연체험 공간이다. 평강식물원의 모토는 '평안한 마음, 건강한 몸'이다. 평강식물원 원장 이환용(49) 한의학 박사의 신념처럼,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을 자연에서 체험할 수 있다. 식물원 안에 자리한 약선(藥膳)

정병갑 기자 jp61@paran.com



이한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